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 분석

이 속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질환이란 지속적이고, 잠재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병리적 상태로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Eiser, 1990).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수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생명을 위협했던 질병의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13%는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4).

만성질환은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아동기는 연령에 맞게 발달과제를 수행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외모가 변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오는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우울·불안·자존감 저하·슬픔·낮은 자아개념을 경험하게 한다(Shin, 2015).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외래방문, 약물복용, 식이제한 등은 정

상적인 또래들과 다른 일상은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또래 관계 형성에 장애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Lee, Park, & Lee, 2013). 그리고 오랜 기간 치료로 인해 학업에 소홀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Shin & Chok, 2012). 만성질환아들은 장시간 질병이라는 제약 상황 속에서 악화와 완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대처가 적절치 못할 경우 재발을 경험하게 되거나 자신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질병 자체의 특성요인으로 인해, 질병의 예후, 진행과정, 매일 일상에 미치는 영향, 타인관계와의 관계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Kim, 1997).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시기의 만성질환은 이들의 자아정체감, 가치관 그리고 성인으로서 주체의식 획득에 발달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Shin, 2015). 이와 같이 만성질환은 아동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특성상 아동은 진단시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므로 일상생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sara27@daum.net)

•Received: 26 February 2017 •Revised: 12 April 2017 •Accepted: 13 April 2017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Sug Young

Dankook University

705dong 2504ho, 38, Nari-ro, Sejeong-si, Republic of Korea, 30130.

Tel: 82-10-9950-3758 Fax: 82-44-866-3758 E-mail: sara27@daum.net

활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질병관리에 있어 의료인의 지시행위를 이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이조절, 건강관리, 운동, 약물복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일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절해가며 이에 대한 통찰을 갖고 일상생활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이 필요하다(Kim, 1997). 이를 행함에 있어서 만성질환자에게 자기관리는 중요하다.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라는 장기적인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적응해가면서 일상생활과 질병을 관리해가는지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일상에서 질병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자기관리는 대상자에게 총체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자기관리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면서 자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위적 성격으로 정의되고 있다(McInerney, 2013). 인간은 사회적·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심리행동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내적결과와 외적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을 자기관리 라고 하였다(Yates, 1976).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유형, 무형자원인 시간관리·체력관리·대인관리·학습관리 등의 자기생활관리 복합적인 개념(Gwon, 2012; Im & Yu, 2008; Park & Kim, 2012)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간호학에서 자기관리란 1차 건강관리 차원에서 질병을 조기발견과 치료,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을 행하는 과정이며(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이를 토대로 대다수의 간호학 연구자들은 자기관리를 질병관리 행위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로 성인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질병관리행위에 대해 연구 되어온 것을(Gi & Park, 2012; Kang & Gu, 2015; Song, 2008), 아동 영역에서 만성질환자에게

적용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 Kwon, 2016; Ryan & Sawin, 2009). 따라서 아동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미흡하다. 아동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며, 평생의 건강을 이끌어 가는 생활습관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다. 질병관리 행위 측면만을 통해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자기관리 개념은 성인과 다른 발달적 상황을 고려 할 때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만성질환자들에게 질병관리행위로 나타나는 자기관리가 어떻게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관리의 의미와 차원을 통해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를 위한 중재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 개발은 추상성이 높고 현장 적용에 모호한 개념 개발을 위하여 이론적 분석 작업과 함께 현장작업 단계의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간호학적 관점에서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만성질환아의 다양한 임상적·주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접근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Barcott와 Kim(2000)의 혼종모형(hybrid model)을 이용하여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분석을 하고자 한다(Schwartz-Barcott & Kim, 2000).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분석을 통해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의미와 속성을 파악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도구개발을 위한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차원 및 속성을 규명하고 지표를 개발한다.
-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속성에 근거한 정의를 내린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로서 혼종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단계, 현장작업 단계, 최종분석 단계의 3 단계에 따라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각 단계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단계에서는 분석한 개념의 의미와 작업적 정의를 선택한다. 현장작업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를 거친 개념을 경험적 확인 과정을 통해 실증적인 개념으로 구체화시키고,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귀납적 접근방법을 통해 얻은 자료와 이론적 분석 자료를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개념정의를 내리게 된다(Corbin & Strauss, 2014).

1. 이론적 단계

이론적 단계에서는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속성에 관심을 두고 본질적 의미 고찰을 위해 사전적 의미와 학술문헌을 고찰하였다. '자기관리'를 주제로 국내 문헌검색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정보검색을 통해 총 50편의 학술논문 중 연구 주제와 관련이 적은 20편을 제외한 30편을 분석하였고, 국외 논문 검색을 위해 PubMed에서 'Self management in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를 주제로 최근 10년간 연구논문 중 제목이나 초록을 확인한 결과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인 자기관리에 적합한 문헌은 20편이었으며, 이중 자기관리의 개념적인 속성과 정의를 다룬 8편을 분석하였다.

2. 현장작업 단계

현장단계에서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연구자의 준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 시행 전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간호이론'을 수강하였으며, 수차례 질적 연구 관련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윤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D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2015-04-015-002)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 참여자와 부모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내용 녹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에 참여자와 의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만 18세 미만인 참여자는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도 함께 받은 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자료 및 정보는 익명으로 표시하여 고유번호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보안문서로 지정·저장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유의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 1년이 지났으며, 이후 외래를 다니면서 질병관리를 하고 있는 9명의 만성질환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현장단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14세에서 20세 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 말부터 동년 12월 초까지였다.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론적 단계에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개념의 잠정적 정의를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개방적 면담 질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면담질문은 '그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관리해 가는지 말해주겠어요?'였다. 세부적인 질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외모, 성격, 건강)?', '자신의 질병과 관련하여 어떤 유익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이 아프기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일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스스로 통제는 어떻게 하세요?' 등의 질문을 구성하여 진행하면서, 초기 면담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석해 가면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녹음 후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에 따랐으며(Corbin & Strauss, 2014) 면담내용으로 주요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현장단계와 이론단계의 주요영역은 개념의 속성과 지표를 비교 분석하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념 개발 경험이 풍부한 아동간호학 교수, 국문학 교수 그리고 심리학 전공자에게 자문을 받으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참여자에게 되돌아가 내용

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며 타당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3. 최종 분석 단계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뽑아진 속성과 현장단계에서 자료를 분석한 후 자기관리(self management)의 정의 및 속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이론적 단계

1) 자기관리의 사전적 의미

자기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영문으로는 self management, 한자로는 自己管理이며, 글자 그대로 '제 몸을 통제하여 건전한 유지나 성장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환경여건을 조절하며, 행동결과를 조정하면서

관리 해가는 것을 자기관리 과정이라 하였다(McInerney, 2013). 간호학 사전에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의료진과의 접촉 하에서 개인이 행하는 예방적, 치료적 건강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은 외부적인 통제나 조절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를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인접학문 문헌에서의 자기관리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관리와 관련된 개념적 수준과 범위를 통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 자기관리와 관련 3가지 관점을 통해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사회적·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자신이 통제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Sex	Age	Average disease period	Diagnosis	Time of first diagnosis	Whether medication taken
1	M	14	About 5 years	Nephrotic syndrome	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2	F	19	About 9 years	Nephrotic syndrom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3	F	19	About 8 years	Henoch-Shönlein purpura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4	M	16	About 5 years	Nephrotic syndrom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5	M	17	About 6 years	Nephrotic syndrom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6	M	16	About 11 years	Nephrotic syndrome	5 years	Yes
7	F	14	About 2 years	Asymptomatic hematuria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8	M	19	About 3 years	Glomerulonephritis	1st year high school	Yes
9	F	19	About 11 years	IgA nephropathy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Yes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외부적 환경을 스스로 통제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창의적인 존재이며 자기관리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한다(Im & Yu, 2012).

인간의 행동을 통해 보는 자기관리는 인간의 행동방식에 따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 결과나 외적 결과의 요소들을 조절을 위해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통해 자기관리 관점은 행동수정의 원리나 심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조절하는 과정을 새롭게 학습하는 과정이다. 학습 원리를 자신의 행동에 적용시키며 더 나아가 자기관리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Yates, 1976).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자기관리와 관련된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 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운동선수와 무용수들은 일상생활, 훈련, 시합에 직면했을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 행동 전략으로서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외적인 특성으로서 스스로 행위에 책임을 지며 노력해가,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으로서 준비하는 과정과 실천에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해가는 것을 자기관리라고 하였다(Hyun, 2012; Lee, Kim & Kang, 2014)).

교육학 영역에서 학습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관리 즉 시간관리, 체력관리, 대인관계 관리, 학업관리를 해가면서 결과로서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성취에 도달하는 목표관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자기관리이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자원들을 소비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보상하며,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Gwon, 2012; Im & Yu, 2012; Kim & Park, 2008).

3) 간호학에서의 자기관리

간호학에서는 자기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자기조절, 자기통제, 자가간호 등이 있으며, 자기관리는 외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자기조절, 자기통제, 자가간호 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질병을 관리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자기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만성질환아들에게 심리사회적요인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자기관리 개념의 한축으로 제시하였으며(Craig, Lowe, Sainsbury & Tong, 2008; Cramm, Nieboer, Roebroek & Strating, 2013). 또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며,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기관리를 행위로서 이끄는 동력이다(Kim & Yoo, 2015; Littlefield et al., 2009; Rohan et al., 2013).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이 자기관리의 내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 만성질환아들에게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이들의 질병관리행위로서 자기관리의 개념이 사용되었다(Kim & Kwon, 2016; Ryan & Sawin, 2009). 만성질환아들은 진단 초부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되며, 그리고 학령기와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이 가족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발달적 시기이기도 한다. 만성질환아동을 둘러싼 인적 환경적 요인들로서 가족구성원은 가정이라는 공동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가며 자기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Adwan, Garwick & Leonard, 2008). 성장해가면서 집 밖에서 활동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래집단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됨으로서 또래집단은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Embuldeniya et al., 2013). 만성질환아에게 이들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또래집단과 가족은 자기관리에 직접적인 작용은 하지는 않지만 자기관리 행위를 하게끔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론적 단계에서의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지표, 잠정적 정의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간호에서의 자기관리는 내적, 환경적, 행위적 차원으로 나누어 질수 있으며, 내적 차원에서는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이

포함되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또래집단과 가족이 포함되며, 행위적 차원에서는 질병관리 행위가 속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적 단계에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 선형요인은 장시간 질병상황에 놓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 잠정적 정의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가지고, 그들을 둘러싼 또래집단과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질병관리 행위를 해가는 능력'을 의미 한다 (Table 2).

2. 현장작업 단계

현장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 차원은 내적, 환경적, 행위적 차원으로 나타났다.

내적 차원의 속성에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내적 성장이 나

타났으며, 환경적 차원의 속성으로는 처음 진단부터 지속적인 부모의 돌봄과 함께 사는 가족들의 배려, 그리고 성장해가면서 또래집단과의 어울림이 증가하면서 또래들의 지지가 지지자원으로서 환경적 차원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위적 차원으로 나타난 속성으로는 스스로 일상을 통제해가기와 적극적 건강행위가 나타났다(Table 3).

1) 긍정적 삶의 태도

긍정적 삶의 태도는 내적 차원의 속성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질병초기에 질병으로 인해 입원도 힘들었고, 재발하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면서 일상생활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됨으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긍정적 삶의 태도는 장시간 질병을 가지고 관리해가

Table 2. Dimensions, Attributes, Indicators and Preceding Factors of Self Management from the Chronic disease children in Literature Review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Preceding Factors
Internal	Positive self concept, Sense of self-efficiency	Confidence for themselves, Confidence of capability to control the situation	Be in chronic disease, Willingness of doing by themselves,
Environmental	Source of supports	Social support	
Behavioral	Following diseases control	Following the treatment of disease	Sense of responsibility

Table 3. Dimensions, Attributes, Indicators and Preceding Factors of Self Management from the Chronic disease children in Field work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Internal	Positive attitudes of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life attitude • Accepting their situation positively
	Internal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 self awareness • Mental progress
Environment	Source of suppo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 from parent(s) • Care from family • Support from friends
	Control their daily l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olling the environment • Controlling the physical activity • Adapt themselves to the treatment of disease
Behavioral	Active health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 directed maintaining their disease • Confirming healthy daily life • Changing other persons' attitude toward the health positively

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가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하였다.

그냥 우선은 현재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그냥 좋게 생각해 봤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 안하고 그냥 안 좋게 생각 안하고 그냥 지금 현재만 열심히 생활하고 나중에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8)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미리 미리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병원에 계속 다니니 돈도 많이 들고 만약에 투석까지 간다면 그렇고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치료비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 테니까요. (참여자 9)

지금은 외래 다니면서 별다른 이상 없고 약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가족도 전체적인 면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친구관계도 좋고, 학교생활은 엄청 좋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과하고 함께 하는 것도 좋고 학교 끝나고 노는 것도 재미있고. (참여자 1)

2) 내적 성장

내적성장은 내적 차원의 속성에 해당한다.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체육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친구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장해가며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과의 지속적인 내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강화와 타인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인격체로서 정신적 성장을 의미하였다.

자기 몸을 좀 더 소중히 다룬다는 것 저는 뭔가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몸 부딪히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는 야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축구하고 그랬는데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인대 끊어지고 붓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몸을 좀 사려요. 제 몸을 아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거친 것을 안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변한다고 해야 하나. 아픈 계기로 철이 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8)

제가 싫어했던 애들이 같은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앉아서 쉬는 시간에 막 공부만 하는 애들 완전 싫어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을 했어요. 애들도 자

기들 목표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때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관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애는 왜 이럴까 애는 왜 이럴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애는 이래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팠던 게 제가 노는 애들이랑 안놀던 애들이랑 안놀던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을 좀 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참여자 6)

3) 지지자원

지지자원은 사회적지지 자원으로서 환경적 차원의 속성에 해당된다. 부모의 돌봄은 진단 시작부터 청소년 후기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을 돌보면서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질병관리를 잘해 가는데 도움을 준다. 가족들은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힘든 일은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며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의 질병관리를 잘하도록 중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함께 어울리면서 지낸 친구들은 참여자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함께 어울리면 생활하는 환경에서 질병관리 행위 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엄마가 제 질병에 대해서 알아 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음식 조절 안하면 난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음식 관리 좀 잘하라고, 약도 평생 먹을 수 있다고. (참여자 3)

아빠가 저번에 눈을 사가지고 농작물 같은 것 키우는데 도와 달라고 할 때 일부러 저한테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고 형한테만 도와달라고 하고 약간 그런 것은 안해요. 형도 이해를 해주고 제가 안하는 것을 당연이 여기고요. (참여자 4)

처음에는 개네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전기공학과 다니는 애가 있는데 8년 된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술 같은 것 먹지 말라고 같이 술자리 가도 너는 먹지 말라고.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명 5년된 친구는 신장이 아픈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엄청 심할 때 혈압 낮추는 약으로 5mg을 먹었거든요. 근데 개가 제가 10mg을 먹는 것을 알고는 너는 심각한 줄 알라고 먹지 말라고, 거의 다 이해를 해줘

요. (참여자 8)

4)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기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기는 행위적 차원의 속성에 해당된다. 장시간 질병을 지닌 채 생활해 가면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생활을 조절하거나 친구들과 일상에서 5번 만나서 놀던 습관을 2번으로 줄이는 조건을 조절하기도 하면서 환경을 조절해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신체활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질병치료방식에 순응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통제해 가게 된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질병과 관련하여 이전과 다른 환경에 적응해가게 되면서 일상에서 질병관리가 자신을 통제하면서 나타났다.

과자는 그냥 나트륨 보고 함량 적은 것으로 먹어요. 달달한 게 좀 그나마 나트륨 함량이 적더라고요. 사또 밥이라고 그게 나트륨 55밖에 안되요. 다른 것은 200, 300되는데 그런 것 먹거나 아니면 초코 있는 것 달달한 게 많이 소금량이 없어서. (참여자 2)

저는 몸을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 생일 파티 경우 밤새도록 놀아요. 왜냐하면 알바하고 그 이후 시간에 끝나서 만나서 놀아야 하니까요. 그냥 가서 과격하게 놀진 않고 앉아 있을 때도 많고 괜찮다 싶으면 뛰어 놀고 아 좀 힘들다 그러면 앉아 있고 괜찮다 싶으면 뛰어놀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만 있어야 해요(참여자 3).

친구들이 술 먹자고 5번 말하면 2번은 가서 먹거든요. 되도록 안 가려고 하는데 한번 씩은 가서 한번 갈 때 잘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꾸 짬 것 먹게 되니까 되도록 안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려고요. (참여자 9)

알람을 맞춰놓고 저녁에 11시에 약 먹도록 알람을 맞추어나요. 옛날에는 알람을 맞춰봐도 이따 먹어야지 하고 그러다가 까먹고 안먹기도 했어요. 지금은 알람 울리면 바로 먹고. (참여자 9)

5) 적극적 건강행위

적극적 건강행위는 행위적 차원의 속성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감기나 무리한 활동 등 재발유발상황을 스스로 관리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자하며 자신의 건강을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 스스로 질병관리를 하게 된다. 질병을 관리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도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 몸이 안좋아 질 것 같으면 친구들 아무하고도 놀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놀아요. 나가면 피곤하고 만나도 제대로 놀지 못할 것 같고 그러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편히 쉬면 편할 것 같아서. (참여자 2)

어디가 안좋은지도 알려고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하고, 의사선생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고, 매번 약을 먹으니까 그게 어떤 약인지 궁금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봐서 알게 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병원 와서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것도 듣고 네이버 지식 검색을 통해 더 알아보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5).

약 잘 챙겨먹는 것, 그 다음 밥 세끼 먹는 것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있으면 안 먹어요. (참여자 6)

요즘은 엄마도 제 음식을 따로 해주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음식을 대체로 싱겁게 해요. 저 때문에 매운 것 좀 덜 넣고 소금 적게 넣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동생들도 그렇고 아빠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4)

3. 최종 분석 단계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분석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정의, 속성과 지표를 규명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 3가지 차원의 4가지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분석단계에서는 3가지차원의 5가지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론적 단계에서 내적 차원으로 도출된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현장 단계에서 '긍정적 삶의 태도'와 '내적 성장'으로 확장된 속성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차원은 이론적 단계와 현장단계의 차원은 지지자원으로서 '부모님, 가족, 또래집단의지지'체계가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행위적 차원은 이론적 단계에서 속성으로 도출된 '질병관리 행위'는 현장 단계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가기'와 어느 순간 질병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건강한 생활습관

이 형성이 되는 '적극적 건강행위'로 확장되어 나타났다.

1)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차원, 속성 및 지표

혼중모형을 통한 개념분석이 개념의 의미와 측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단계의 분석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를 종합하면서 각 속성에 대한 경험적 지표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

내적 차원의 속성으로서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은 현장단계에서 내적 성장, 긍정적 삶의 태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두 영역을 통합하여 '자신을 재정립하기'라는 속성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해당하는 경험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생활 태도',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 '자아 인식 강화', '정신적 성장'의 4개의 지표가 해당된다.

환경적 차원의 속성은 이론적 단계와 현장단계가 비슷하게 '지지자원'으로 도출되었다. 경험적 지표는 '부모님의 돌봄', '가족의 배려', '또래들의 지지'로 3개의 지표가 해당된다.

행위적 차원의 속성은 이론적 단계에서는 '질병관리 행위'가 현장 단계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기'와 '적극적 건강행위'라는 두 개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론적 단계의 속성이 현장 단계에서 경험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현장단계에서 확인된 속성으로 통합하였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기의 경험적 지표는 '환경 조절해가기', '신체활

동 조절해가기', '질병치료 방식에 순응해가기'이며, 적극적 건강행위의 경험적 지표는 '자기주도적 질병관리해가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가까운 주변인에게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 변화 유도'로 6개의 지표가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내적·환경적·행위적차원의 3가지 차원, 자신을 재정립해가기·지지자원·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가기·적극적 건강행위의 4가지속성 그리고 13가지 지표가 최종분석 되었다(Table 4).

2)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의 정의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에서 파악된 속성을 토대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를 정의하면, 내적 차원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며, 환경적 차원에서 지지자원의 도움을 받고, 행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가면서 적극적 건강행위를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IV. 논 의

만성질환아들은 질병초기 가족의 돌봄을 통해 질병관리를 하다 성장해가면서 스스로 질병관리를 하게 된다.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며 적응해가야 하고, 또한 발달과업도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일상생활을 해감에 있어

Table 4. Dimensions, Attributes, Indicators and Preceding Factors of Self Management from the Chronic disease children in Final Stage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Internal	Redefining oneself	① Positive life attitude
		② Accepting their situation positively
		③ Strengthen self awareness
		④ Mental progress
Environment	Source of supports	① Care from parent(s)
		② Care from family
		③ Support from friends
Behavioral	Controlling their daily lives by themselves	① Controlling the environment
		② Controlling the physical activity
		③ Adapt themselves to the treatment of disease
	Active health behavior	① Self directed maintaining their disease
		② Confirming healthy daily life
		③ Changing other persons' attitude toward the health positively

서 만성질환아들에게 중요한 자가 간호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내적·환경적·행위적 3차원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내적 차원으로서 자신을 재정립하기는 이론적 단계의 긍정적 자아개념·자기효능감이 현장 단계에서 내적 성장과 긍정적 삶의 태도로 나타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장시간 질병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참여자들에게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현 상황을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여기게 되며 자신을 재정립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병관리행위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Mark & Michael, 2013), 만성질환아들의 자기관리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기관리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만성질환아들이 자신을 재정립해가며 내적 성숙이 일어나도록 정서적 돌봄을 제공해주는 간호가 중요하다.

환경적 차원은 문헌고찰과 현장 단계를 거쳐 지지자원임을 확인하였다. 만성질환아들이 질병을 가지고 일상을 생활해 갈 때 이들을 둘러싼 지지 자원은 부모의 돌봄, 가족들의 배려, 친구의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적 지지자원은 이들이 자기관리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일상 생활하는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자기관리를 견인을 해주고 있다. 부모는 진단 시부터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주고, 가족들은 질병관리행위에 함께 동참을 통해, 그리고 친구들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잦은 외래 방문으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만성질환아에게 가족과 친구들은 자기관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Adwan, Garwick & Leonard, 2008; Lee, Park & Lee, 2013; Ryan & Sawin, 2009)을 주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환경으로서 작용하는 인적자원과 함께 하는 중재적 접근이 필요하다.

행위적 차원은 이론고찰과 현장단계를 거쳐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가기와 적극적 건강행위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문헌을 통해 확인된 질병관리 행위는 현장단계에서 만성질환아들은 질병을 가지고 오랜 시

간 일상생활을 해가게 된다. 그리고 차츰 일상에서 질병으로 인한 제약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질병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변 환경인 학교생활, 친구들과 어울림, 그리고 신체활동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해 가며 건강관리를 해가게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된 질병관리행위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행위는 만성질환아들이 오랜 시간 자신과의 인내와 노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로서 이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과 현장 분석 단계를 거쳐 확인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초기에는 부모의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적인 속성은 약하게 작용되면서 수동적 질병관리행위로 나타났다. 성장해가면서 정신적 성장과 자아인식이 강화되며 내적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랜 친구들과 부모는 이들의 건강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질병관리와 관련해서 스스로 통제하며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해가며 건강행위를 실천해가게 된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이들이 처한 질병이라는 상황 아래서 개인의 내적·환경적·행위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도출된 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andura의 상호작용이론에서 인간의 행위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이론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77). 그러므로 만성질환아에게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단순히 질병관리행위의 개념으로서 1차원적으로만 접근해가기보다는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있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양한 아동만성질환아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한정된 만성질환으로 접근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담에서 면담질문을 통해 장시간 질병 상황 하에서 어떻게 자기관리를 해 나아가는지에 초점을 두어 면담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에 따른 도출된 지표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서 밝혀진 자기관리의 속성을 중재요인으로 간호실무적 차원에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self management)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로 분석 결과, 만성질환아의 자기관리는 내적으로는 자신을 재정립하기를 하면서, 환경적 차원에서는 지지자원의 도움을 받으며, 행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적극적 건강행위를 실천해가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아들에게 장시간 질병이라는 상황에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기관리를 해감에 있어서, 자기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만성질환아를 간호함에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기관리의 차원과 속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대상자들의 자기관리역량을 높이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ndura, 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http://psycnet.apa.org/doi/10.1037/0033-295X.84.2.191>
- Cramm, J. M., Strating. M. M., Roebroek, M. E., & Nieboe, A. P. (2013). The importance of general self efficacy for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chronic condi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1), 551-561.
- Corbin, J. M.,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Newbury Park, CA: Sage.
- Embuldeniya, G., Veino,t P., Bell, E., Bell M., Nyhof-Young, J., Sale, J. E., & Britten, N. (2013). The experience and impact of chronic disease peer support interventions. *A Qualitative Synthesis. Patient Education Counseling*, 92(1), 3-12.
- Eiser, C. (1990). Psychological effects of chronic disea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2), 85-98.
- Gwon, B. R.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ther's family management ability and child's attachment and self-regulatory ability upon child's management of time and life*. Un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Gi, M. Y., & Park, Y. H. (2012). The effects of hypertension self-help program on hypertension-related knowledge, self-efficacy, self-management compliance and physiological parameters in workers. *Korean Journal Occupation Health Nursing.*, 21(1), 1-9.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1.1>
- Hyun, B. R. (2012). *Effect of self leadership on self regulation and self efficacy among the undergraduate majoring korean traditional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Im, E. k., & Yu, Y. O. (2012). Relation between Leadership and self-control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1(1), 211-224.
- McInerney, D. M. (2013). *Educational Psychology* (6th ed.). Perason Australia: Pearson Higher Education AU.
- Kim, D. H. (1997). Health care of adolescent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s. *Koream Journal of Nursing Query*, 6(2), 9-24.
- Kim, S. S., & Kwon, I. S. (2016). Knowledge and practice in self-management on asthma of school-aged children with asthma. *Children of Health Nursing Research.*, 22(2), 87-96. <http://dx.doi.org/10.4094/>

- chnr.2016.22.2
-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n Dictionary Study.
- Kang, H. Y., & Gu, M. O. (2015)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motivational interviewing self-management program for elderly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5(4), 533-543. <https://doi.org/10.4040/jkan.2015.45.4.533>
- Lee, B. R., Park, H. J., & Lee K. Y. (2013). Korean adolescents' physical health and peer relationship: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127-144. <http://dx.doi.org/10.5723/KJCS.2013.34.5.1>
- Lee, Y. H., Kim, J. T., & Kang, K. W. (2014).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competition anxiety of inline skating.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3(4), 615-628.
- Leonard, B. J., Garwick, A., & Adwan, J. Z. (2008).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and involvement in diabetes manage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1), 405-414.
- Littlefield, C. H., Craven, J. L., Rodin, G. M., Daneman, D., Murray, M. A., & Rydall, A. C. (2009).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binging to adherence to diabetes regimen among adolescents. *Diabetes Care*, 15(1), 90-99.
- Mark, A. F., & Michael, H. B. (2013). Self-concept among youth with a chronic illness: A meta-analytic review. *Health Psychology*, 32(8), 839-848. <http://dx.doi.org/10.1037/a0031861PubMed>
- Park, E. J., & Kim, E. S. (2008). The time management practice of middle school students : Affecting variables and cor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1), 41-55.
- Rohan, J. M., Pendley, J. S., Delamater, A., Dolan, L., Reeves, G., & Drotar, D. J. (2013). Patterns of self-management in pediatric type 1 diabetes predict level of glycemic control 2 years later.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4(3), 186-96.
- Ryan, P., & Sawin, K. J. (2009). Individual and family self-management theory: Background and perspectives on context, process, and outcomes. *Nursing Outlook*, 57(2), 217-225.
- Shin, Y. M., & Chok, S. M. (2012).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with chronic physical illness. *Annals Pediatric Endocrinology Metabolism*, 17, 1-9. <http://dx.doi.org/10.6065/apem.2012.17.1.1>
- Shin, E. J. (2015).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management of mental health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illness and their parent*(November. Report No. 2015-05). Academic Research, Final Repor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pileps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 Song, Z. K. (2008). Self efficacy and family factors effecting self management of adult epilepsy.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35(2), 819-121.
- Schwartz-Barcott, D., & Kim, H. S. (2000). An expansion and elaboration of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In B.L.Rodgers, & K.A. Knafl(Eds.),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pp. 120-159). Philadelphia,

- PA: W. B. Saunders Co.
- Tong, A., Lowe, A., Sainsbury, P., & Craig, J. C. (2008). Experiences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chronic kidney disease: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Pediatrics*, *121*(1), 349-36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chartbook*. Rockville, M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 Saunders.
- Yates, D. T. (1976). *Political innovation & institution building - the experience of decentralized experiments in theoretical perspectives in urban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Yoo, H. J., & Kim, H. S.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mpowering a self-efficacy (EASE) program for children with epilepsy.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45*(1) 54-53. <http://dx.doi.org/10.4040/jkan.2015.45.1.54>

Concept Analysis of the Self Management in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Lee, Sug Young (Lecturer, College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self management” of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s. **Methods:** For analyzing the concept of self management, this study used the hybrid model. This study involved in-depth interviewing nine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Results:** The concept of self management of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can be categorized with three dimensions: intern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Besides, five attributes and thirteen indicators were analyzed. The concept of self management of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can be expressed as a kind of process: a) re-established yourself (internal dimension), b) assistance by the surrounded (environmental dimension), and c) positive health management behavior with self control of daily life (behavioral dimension). **Conclusion:** The self management is important for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to control their disease for long time. The attributes and indicators drawn by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ool development and useful resources of self management competence in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Key words :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s, Self management, Concept analysis